

# 무등산 시설물 '산 속 예술품'으로 만들 수 없나

### 생동맞은 토끼등 화장실 계기...장불재 화장실 개선 목소리도 시끌 광주시,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바뀌어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화장실)로 지역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조만간 들어설 장불재 화장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등산 정상에 서서대와 마주보고 있는 장불재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인 만큼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환경 친화적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장불재 화장실(조감도)은 3.3m 높이(연면적 65.72㎡)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화장실인 점을 감안, 친환경적인 무방류 수세식 방식을 적용했지만 네모 반듯한 기존 디자인을 벗어나지 않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불재는 무등산의 대표 명소인 서석대-입석대와 마주한 곳으로, 광주시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조감도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의 조화를 담아내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무등산 속에 있는 것 자체로 예술품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능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무등산국립공원측은 네모 반듯한 화장실



장불재 화장실 조감도.

을 등산객들이 오기는 토끼등에 설치, 주변 환경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터리로 화장실을 지어놓았다'면서 "국립공원 관리

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말도 했었다.

장불재가 위치한 화순군의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경관 조례(3조)를 두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건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토끼등과 장불재 모두 국립공원공단이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한 데다, 수익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흡한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홍근 건축가는 "산 속에 있는 자체로 예술품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며 "기능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휴가철 광주~서울 열차 증편 26일부터 주말 무궁화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가 여름 휴가철 동안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철도 운행 횟수를 증편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말(토·일요일) 광주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무궁화호를 왕복 1회씩 추가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6-27일, 8월 2-3일, 9-10일, 16-17일 총 8일 동안 임시 열차가 운행된다.

임시 열차는 광주역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용산역에 오후 1시 41분에 도착한 뒤, 용산역에서 오후 6시 8분에 출발해 광주역에 밤 10시 40분에 도착한다.

열차의 상세 운행 시간 및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투표 체험  
법무부는 17일 광주시 북구 슬로몬파크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열었다. 학생들이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갑질 호소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선배와 통화 내용 보니 "너희 앞길 막을 수 있다" 교수 말 놓고 대화

### 최근 대기업 합격...안타까움 더해

최근 갑질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대 대학원생이 숨지기 직전 친한 선배에게 '갑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당 대학원생은 서울 지역 대기업 '한화글로벌'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대와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 A(24)씨는 추락 4시간 전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친한 선배 D씨와 통화하며 '갑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유족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선배에게 '대학원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는 게 맞느냐'는 등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의 지도교수가 '내가 너희들 앞길 막을 수 있다'는 등 협박성 말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또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교수로부터 '다른 곳으로 취직해도 우리 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연구실을 못 벗어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주변 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전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화글로벌'에 지원하고도 교수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통화 중 '두 교수가 다른

곳으로 취직해도 우리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실을 못 벗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산학 연구과제 4개에 참여하면서 행정, 회계처리 등도 함께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실에는 지난 11월 말 다른 선배가 이직하면서 대학원생이 한 명 뿐이라 업무가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노트북에는 골프 대회, 칠선 잔치 준비까지 한 정황들도 확인됐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대학 학과장은 A씨 사후에야 뒤늦게 A씨의 가족 측에 한화글로벌 합격 사실을 전달했다.

전남대는 교내에 마련된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갑질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A씨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A씨가 학교 인권센터에 갑질 피해를 접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첫 제자라서 애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생활관 16층 옥상에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전 '나와의 채팅방'에 지도교수와 박사(연구교수) 2명에게 과중한 업무를 넘겨받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학교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며, 학교측은 해당 교수와 연구원을 업무에서 분리시키고 대학원장과 학생처장, 인권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이 대통령 "포스코 추락사' 철저 조사"

### 당국·경찰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노동 당국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 등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룬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과정에서 A(63)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같은 금속제조업체 직원 B(36)씨와 함께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을 뚫고 올라가 배관 철거 작업을 하다 배관이 붕괴되면서 1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여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을 지시하던 C(64)씨도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공장 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조선대병원 수술실 재가동

조선대병원이 화재로 중단됐던 환자 수술 일정을 재개했다.

17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던 신관 3층 수술실 15개 중 14개를 운영하면서 이날 30여건의 수술 일정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수술실(7번) 내 천장에 달려있던 전기공급장치 화재로 병원 신관 3층에 위치한 15개 수술실이 전면 폐쇄됐다.

병원측은 7번 수술실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수술실에 대해 병원 자체 대기질 검사 및 외부 전문업체의 실내 공기질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정상' 판정을 받고 수술실 가동을 재개했다.

7번 수술실도 내부 청소와 불탄 시설물의 철거·소독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장비 교체 등 시설 복구 작업과 안전 점검 필요성 등으로 운영 여부는 미지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